

展示會 - “마당의 思想”

金仁喆 /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제건축

지난 오월팔일 일본의 한 전시장에서 “新世代之 韓國建築 3人展”-“마당의 思想”이 열렸다. 그리고 그다음날 일본건축회관에서 심포지움이 있었고, 며칠후 오사카의 테이진홀에서도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 참여하게된 본인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행여나 실수가 없도록 오랜동안의 준비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는 부족함이나 미숙함때문에 아직도 불안함은 어쩔수 없다.

어떤분들은 어떤 연유로 이런일이 있게되었는지를 궁금해 할것이고, 또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싶어 할것으로 생각된다. 언젠가 하나의 결과가 만들어 지겠지만 우선 개인적인 소감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작년에 일본의 건축가 안도다다오(安藤忠雄)의 초청강연회가 “꾸뎀”지의 주최로 있었는데 그때 한국건축을 돌아보게된 그로부터 일본에 한국건축을 소개하는 기회를 만들자는 제의가 있었다고 한다. 마침 그가 운영위원으로 관계하고 있는 GALLERY MA(間)에게 해외의 건축가들을 일본에 소개하는 기획전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그 프로그램의 하나로 제안되었던 것이다. 나중에 알게된 일이지만 “間”는 비영리조직으로서 우리가 TOTO라고 알고있는 위생기기의 메이커인 東陶機器가 출연한 문화정보센터의 한 기능이었다. 일종의 문화사업으로서 건축계에 의미가 있는 사업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에게 제시된 조건도 전시회를 위한 작품제작과 심포지움의 자료준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間”측에서 부담하는 것이었는데, 막상 그 진행을 지켜보았을때 여기에 소요된 경비는 상당한 금액인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계기로 시작된 이 계획은 ‘꾸뎀’과 ‘間’측간에 구체적인 의견이 오고 가면서 구체화되어 ‘間’측에서는 운영위원중의 한사람인 시바우라(芝浦)大學의 미야게리이찌(三宅理一)교수가,



‘꾸뎀’에서는 주관을 맡고 있는 牧園大學의 金晶東교수가 진행을 맡게되었는데 출판작가의 선정과정에서 부터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고 한다. 전시회의 성격이 한국의 건축을 내세우는 것이아니라 건축가의 개성을 제시하는 것이었고, 전시장의 규모에 맞추기 위해서 규모를 제한하여야 했으므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 작가들이 거론되고 자료가 모여져 “꾸뎀”과 “間”의 협의를 거쳐 “아람광장”의 金琪碩씨와 “우원”의 趙成龍, 그리고 본인의 세사람으로 결정된것이 작년 3월경이 었다고 기억된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있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는 40대로서 아뜨리에 활동을 하는 작가중에 비교적 다른 개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선택이 되었다고 한다. 金重業, 金壽根, 두분이 계시지 않는 경우로서 그분들 만큼 대외적으로 알려진 건축가가 없다는 핸디캡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이제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추진되었다고 한다. 한번 스쳐가버리는 행사로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였다고 생각된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일년간은 이일에 매달리게 되었는데 그과정상에 있었던 어려움이나 에피소드들은 다른 지면이나 다른분들을 통해서 소개될것이므로 중복을 피하기로 하고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일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건축활동을 너무 국한시켜 생각했던것이 아닌가 싶다. 스케치에서도 면작업, 현장작업의 확인만으로 우리의 작업이 완성되고 그 이후의 일은 되어진 건물 사진찍고 평면, 입면, 단면등 잉킹해서, 설계소묘라는 해설정도를 붙여 잡지에 실리는 이러한 반복만으로 자기표현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사람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하겠지만 “건축은 문화이며 건축가는 예술가로 대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반대중에게 그것이 왜 예술인가를 표현해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것은 상대와의 관계성립에 일방적 주장만 하는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된다.

처음 전시회에 관해 “間”측과 협의가 있었을때 우리들이 제시했던 방법론으로서의 건물사진판넬은 완곡히 거절당했는데 그 이유는 건축이 이미 완성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작가의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가미되었기 마련이므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우리보다 앞서있다고 생각하는 일본에서조차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더할 말이없는 결과일 것이다. 그러므로 표현하여야 할것은 그것이 되어지도록한 작가의 사고와 개념의 전개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저서를 갖고 있는냐고 물어왔는데 건축잡지에 기고한 글출정도만 갖고있는 나에게서는 편이나 난감한 질문이었다. 비교적 글을 많이 쓰는 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책으로 만들어 보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설명을 들어야 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건축적 표현,



능가하는 것이 겠지만 실무를 겸하면서 그런정도의 책을 만들수 있다는 것은 여건을 비교하기 전에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작품집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저것 모은 옴니버스식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를 발상에서 부터 완성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대부분인데 자료로서의 가치는 제쳐두고라도 하나로 집약된 논리의 전개는 확실한 설득력을 갖게된다는 점에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었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하게된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되풀이된것이 우리쪽에서는 가급적 많은 수를 보여 주려했는데 “間”측에서는 한두가지의 압축된 형태를 원하고 있었다. 결국 한작가가 3점씩 출품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전시장의 레이아웃이 이루어졌다. 3점씩의 출품작중 각각의 대표작을 선정해 달라는 주문에 김기석씨는 “학봉교회”를 조성룡씨는 “청담동주택”을 본인은 “원불교경주교당”을 내세우게 되었는데 한가지 아쉬웠던점은 각프로젝트의 타이틀이었다. 우리들은 손쉽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역의 이름에 ○○○주택, ○○교회식의 건물의 용도를 붙이거나 건물 그자체에 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빌딩, ○○회관, ○○사용하는 식의 명칭을 붙이게 마련인데 이것이 우리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된다. 무의미하고 복잡하기만한 심볼은 이미 심볼이 아니듯이 논현동이나 청담동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기만 할것이고 논현동에 주택이 하나뿐이 아닐터에 “논현동주택”이라는 의미는 넌센스일 뿐이다. 그렇다고 “森鶴齋”라고 어렵게 만든 한문체는 더욱 문제다. 그렇다면 그프로젝트에 대한 개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타이틀을 사용하는것이 방법론으로서 생각되는데 국제적인 기호로서 영어를 쓰는것이 바람직 하겠으나 어딘지 아직은 거부반응이 있을 것이므로 “우리마당”같은 쉬운 발음의 우리말이나 쉽게 쓰이는 영어단어등이 좋을것 같다. 다른 분야의 예술행위에는 모두 제목이 있게 마련인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왜 없었던지 새삼스럽게 되었다.

이제 전시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전시할 작품을 표현하는 방법론을 생각하여야 했는데 이를 위해서 세사람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각각의 아이디어를

다시말하면 도면, 투시도, 모형등은 어디까지나 전문적인 방법론 이므로 전문적인 관계에서는 이해의 자료로서 충분하나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일반에게서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글이라는 또하나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건축주를 상대할때 모든 시각적 자료를 제시하고도 누누히 설명을 곁들여야 반신반의하며 따라오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건축은 보고 느끼는 것이아니라 읽어 이해하여야 비로서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므로 자신의 건축 또는 건축관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간 뒤, 전시회 준비로 자료가 어느정도 모여졌기에 책을 만들어보기로 마음먹게 되었는데 급한마음에 서둘러서 그런지 서투른대로 작품집 하나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전시회를 위해 일본에 머물면서 둘러본 책방의 건축코너에는 학자들의 학술서적보다 작가들의 자기주장이 더많은 볼륨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압도되고 말았다. 문고판의 수필집에서 부터, 작품집, 이론서 등 단행본은 물론 시리즈의 형태까지 갖추고 있는 모양은 충분히 부러운 것이었다. 출판사의 수준도 우리를 훨씬

제시하고 평가하기를 되풀이 했다. 사무소의 운영을 제껴둘수 없는 형편이므로 잠깐씩의 사이에 생각해둔 아이디어를 모임에서 제시해 의견을 나누곤 했는데 “間”를 방문했을때 열리고있었던 에드워드 스즈키의 전시회와 “GA”갤러리에서 본 일본현대건축작가전의 인상이 워낙 강했으므로 확실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아야 했다. 결국은 시간에 쫓기면서 결정이 되고 말았는데 김기석씨의 경우는 사진기법을 이용한 판넬과 테라코타를 이용한 모형을, 조성룡씨는 실크프린트기법과 발사를 이용한 모형을, 본인의 경우는 장판지에 팬던트한, 판넬과 투명아크릴을 이용한 모형으로 윤곽이 잡히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모형이란 우리들이 알고있는 건축주용의 정교하고 사실적인 모형이 아니라 계획 과정에서 시도해본 러프한 것이거나 아니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군더더기들을 생각해버린, 포커스가 전혀 다른 것이었으므로 모형전문가에게 의뢰조차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사무소내에서 자체제작을 하게되었는데 재료에 대한 지식과 공구부족으로 상당히 애를 먹고 말았다. 나중에는 운송을 위한 보험료 산정과 통관과정에서 시시콜콜한 에피소드들도 있게됐지만 아무튼 처음 하고, 당하는 일이라 당황한것이 한두번으로 그치지 않았다.

전시장의 구성에 있어서도 우리와 개념이 달랐던 것은 주어진 공간에 판넬을 걸고 모형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문가가 선정되어서 전시장 공간전체를 디자인하고, 연출하는 그러한 방법론이었다. 우리의 전시회를 위해서 “SUPER POTATO”의 스키모도 다카시(杉本貴志)씨가 레이아웃을 하게 되었고 실무자를 한국에 파견하여 자료조사하고 우리들과 공간연출을 위해 협의하기도 했는데 옥내전시장으로부터 옥상정원으로 연결되는 공간에 우리의 온돌방을 만들어 놓기로 결정되었다. 연출의 소도구로서 돈케와 장독, 기와등은 우리측에서 제공한 것이었지만 특히 “안그라픽스”의 안상수씨의 아이디어를 설치한 TV프로그램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TV프로를 무작위로 이것저것 녹화해서 돈케위에 틀어놓는 방법이었는데 VIDEO

ART의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한국의 이미지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는 수단이 되었다.

우리들의 작품에 대한 비디오 역시 전시장 내에 설치되었는데 아마도 이번전시에 가장 힘들었던것이 비디오제작이었다고 생각된다. 일반 카메라는 항상 곁에 두고 있으므로 間측으로부터 비디오의 요구가 있었을때 그러려니 했으나 막상 작업을 시작하려고 했을때는 엄청난 일이 되고 말았다. 우선 “할”가 아닌 “출”TAPES를 사용하는 전문적인 VIDEO CAMERA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과 전문업체에 용역을 하는 경우에는 분당 백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이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은 각자가 제작, 각본, 감독, 편집, 녹음까지 책임지기로 하고 “명성 스튜디오”의 기사들과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일기예보에 신경쓰고 일사각도까지 챙기며 건너집 옥상에도 오르는 별난 작업끝에 그림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을 압축해 짜맞추어 자막과 음악을 집어 넣는 이런일들이 혼자만의 일이라면 포기하기 십상이었을 것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예정대로 일정에 맞추어 “間”에 도착한것이 개막이틀전인 5월6일 오후였는데 전시내용들을 확인해서 바로잡고 일본식이 되어버린 온돌방을 다시 뜯어 고치고, 여러 관계자들과 만나고 회의하며 개막일이 되었는데 그만 맥이 빠지고 마는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일정에 쫓기다가 미처 국내에서 신경을 쓰지 못한것이 매스컴과의 연결이었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일본에 있는 주재원들과의 대화가 손쉬울것으로 생각하고 오게되었는데 그것이 큰 오산이었던 것이다.

‘건축의 문화적 행사로서 처음기획된 것이라는 점’ ‘작가들 개개인은 그럴듯한 유명인사가 아니지만 전시회의 성격만은 의미가 있다는 점’ ‘일본의 대중매스컴에서도 기사화 되고 있다는 점’등을 구구히 누누히 설명했지만 바쁘다는 사양은 지나치더라도 이런행사를 커버한 선례가 없다든지 이런저런일 다 취급하게되면 할일을 못하게 된다는 설명이나 어떤것은 하고 어떤것은 하지않으면 형평에 어긋나므로 얼굴조차 내어밀수 없다는 대답에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것은 떠나면서 급하게 연결되었던 몇 일간지들에 기사화되었다는 연락이었다. 굳이 기사화시키고 싶었던 것은 개인적인 욕심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건축문화도 이제는 자기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기회에 알리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유감스럽게도 별 효과를 얻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런 감상도 잠깐이 었다. 전시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間”의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익어가기 시작했다. 한식으로 차려진 테이블 앞에서 우리들이 소개되고 인사말이 오가면서 우리들은 사람들에 둘러 싸이게 되는데 이곳의 건축가들, 교수들, 저널리스트들과의 약속도 많았지만 소식을 듣고 찾아온 유학생들과의 약속에는 저절로 힘이 들어가는 것을 어쩔수 없었다. 間의 대표인 히라다(平田)씨로부터의 들은 컷말은 “성공적”이라는 단어였는데 무엇이 어떻게해서 성공적이란 것인지도 모른채 다음날의 심포지움걱정에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다.

전시회라는 행사를 치루면서 갖게된 가장 강한 느낌은 결국 건축에서 최종적으로 남아있게되는 것은 작가의 정신이며 이것은 제시하는것이 아니라 제기되므로 해서 인식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허가와 시공을 위한 첫수매김도 중요하겠지만 자신의 생각을 항상정리하고 그것을 표현하려는 시도를 계속함으로써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 나가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자극과 계기는 전시회와 저술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느끼게 되었다.

